

2020학년도 제 2 차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

- 회의일시 : 2020년 1월 17일(금) 15:00~17:30
- 회의장소 : 본관 2층 회의실
- 참석위원 : 유신재 (위원장)
 김달원 (학교법인 사무팀장)
 전종호 (학생문화처장)
 박시남 (기획예산팀장)
 김형은 (학부 총학생회장)
 정민재 (학부 추천위원)
 장두용 (대학원 총학생회장)
 송방호 (경영전문대학원 원우회장)
 김창배 (외부전문가위원)
- 배 석 : 김장훈 (기획예산팀 예산파트장)
 이근화 (간사 / 기획예산팀 직원)

1. 2020학년도 본예산 관련 심사 · 의결 진행

- 배석한 기획예산팀 예산파트장이 아래와 같이 2019학년도 추가경정예산, 2020학년도 본예산, 잉여금 처리 원칙에 대해 설명함.

- 아 래 -

① 2019학년도 교비회계 추가경정예산 (교비회계 : 등록금 + 비등록금 회계)(단위: 백만)

구분	본예산(A)	추경증감(B)	추경예산(A+B)	본예산 대비 증감률
교비회계	176,879	10,753	187,632	6.08%

② 2020학년도 본예산 (단위: 백만)

구분	등록금	비등록금	계
세입	107,390	69,405	176,249
세출	107,390	69,405	176,249

- * 세입 : 등록금, 수강료, 전입 및 기부수입, 교육부대수입, 교육외수입, 자산/부채, 기본금, 전기이월자금
- * 세출 : 보수, 관리운영비, 연구학생경비, 교육외비용, 전출금, 예비비, 자산/부채

③ 잉여금 처리 원칙

가. 잉여금의 정의

- 본예산에서의 전기이월자금과 결산이 반영된 추가편성예산의 전기이월자금의 차이
- 등록금회계의 전기이월자금에 한함.

나. 잉여금의 처리 원칙(안)

- 등록금회계에서 잉여금이 발생할 경우 명시/사고이월의 경우 해당 직접 교육비 예산으로 편성, 기타이월의 경우 장학금 재원으로 활용.
- 일부 장학금 등에 대해서 이월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등록금회계의 예산 이월에 대해서는 철저히 통제하여, 이월금을 최소화하고자 함.

2. 법인전입금 관련 추가 발표

- 법인의 법정부담금 관련 문제에 대해 유신재 위원장과 김달원 학교법인 사무팀장이 발표 자료를 설명함.

3. 위원 발언 및 질의응답

김창배(외부전문가위원)

추경예산 설명에서 약 100억 원 정도가 추경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예산을 편성한 것은 아니고 결과적으로 수입이 발생했다고 보면 되는지.

김장훈(기획예산팀 예산파트장)

증액 추경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음. 첫 번째는 본예산에 잡아놓았던 수입보다 추가로 수입이 더 들어오는 경우 예산을 초과해서 수입전표를 칠 수 없기 때문에 예산을 증액하는 것이 추경의 한 종류가 됨. 두 번째는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았던 행사나 각종 공사 등이 회계연도 중에 계획이 잡히는 경우 추경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여 진행하게 됨.

박시남(기획예산팀장)

예를 들어 국고사업에서 일정 금액이 신규로 지급된다고 하면 그것은 추경을 통해 추가로 예산을 편성하게 됨. 또한 K관 공사처럼 연중 발생하는 건들은 예산에 미리 잡기 어렵기 때문에 추경을 통해 진행하게 됨.

김창배(외부전문가위원)

예산이란 당해연도에 예측 가능한 범위를 예측하여 예산을 편성하게 되는 것인데, 특정되지 않은 추가적인 예산인 추경액이 100억 원이나 되도록 예산을 진행하기보다는 미리 예측하여 최소화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지. 아니면 추경이 회계연도 말에 수지나 회계작업을 위해서 추경을 활용하는 것인지.

김장훈(기획예산팀 예산파트장)

예산 전체가 예산 금액이나 용도가 모두 확실하다면 모두 본예산에 담아 진행할 수 있겠지만, 회계연도 중 불확실성이 언제나 존재함. 학부에서 단위별 기금을 인출하여 사업을 하고 싶어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를 모두 예측하여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은 불가능함.

박시남(기획예산팀장)

명확하지 않은 예측치를 본예산에 반영할 경우 과도한 예산편성이 될 수도 있음.

전중호(학생문화처장)

18회계연도, 19회계연도 추경예산 비교에서 경제관과 철우만레사인성교육원 공사가 완료되어 이월금이 감소했다는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김장훈(기획예산팀 예산파트장)

18회계연도 중에 공사가 완료되어 19회계연도에는 공사 관련 이월금이 소멸했기 때문에, 전년 대비 비교해 보았을 때 공사 관련 이월금이 감소했다는 의미임.

박시남(기획예산팀장)

매년 예측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추경보다는 본예산에 최대한 추가하려고 노력하고 있음.

김달원(학교법인 사무팀장)

추가경정예산 100억 원 중 기금 인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어느 정도인지.

김장훈(기획예산팀 예산파트장)

발전후원기금과 학부 단위별 기금을 포함하여 약 50억 원 정도 되며, 수입대체와 기금인출이 각각 50% 비중을 차지함. 기금 인출의 경우 각 학과들이 회계연도 중 어떤 사업을 진행할지 모두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하기 어려움. 비학위과정과 같은 수입대체의 경우 수입이 얼마나 들어올지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또한 추경으로 진행하여야 함.

김달원(학교법인 사무팀장)

이사회에서 국고나 보조금의 경우에는 예측이 어렵지만, 기금 인출은 최대한 예측에서 추경을 줄일 것을 이사회에서 조언했던 바 있음. 목적기금의 경우 예산편성 시 예측이 가능하지 않은지.

김장훈(기획예산팀 예산파트장)

단위별 목적기금의 경우에도 경상적으로 발생하는 내용은 본예산에 미리 잡아두고 있지만 회계연도 중 비경상적인 공사, 행사 등은 추경이 불가피함.

박시남(기획예산팀장)

학교회계에서는 기금을 쓰려고 하는 것만으로도 추경이 이루어져야 함.

김창배(외부전문가위원)

국제문화교육원 K관 공사와 같이 큰 공사 건들은 회계연도 중 갑자기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미리 계획을 할 수 있다고 봄. 지금도 본예산에 최대한 예측을 해서 추경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하지만 더 줄여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됨. 100억 원 정도나 되는 돈이 예상하기 어렵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움.

김장훈(기획예산팀 예산파트장)

예산의 경우 2019회계 본예산이라 하면 2018년 12월에는 이미 결정이 되어있는 내용만을 본예산에 담을 수 있는데 국제문화교육원 이월기금 적자상환 건이나 K관 공사 건 등도 2~3달 전인 2019년 말이 되어서야 결정된 건이라 1년 전에 미리 편성하는 것은 불가능함.

송방호(경영전문대학원 원우회장)

추경예산의 정의란 새로운 일이 발생하거나, 추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 생겼을 경우 예산을 새로 편성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추경예산의 의미가 기업회계와 비교했을 때 조금 다르다고 느껴짐.

박시남(기획예산팀장)

기업처럼 추정치를 넣었다가 실질적으로 예산과 다르게 진행될 경우 과도한 예산편성이 문제로 지적될 수 있음.

송방호(경영전문대학원 원우회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발생하는 건들을 다 추경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회계상 문제가 되지 않는지

박시남(기획예산팀장)

회계 중 발생하는 추경은 각 단위부서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야 됨. 추경이 없이는 새로운 것이 없이 정상적인 업무만 하게 되는 것임.

송방호(경영전문대학원 원우회장)

등록금심의위원회에 처음 들어왔을 때에도 위원회에서 등록금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동결이 확정되어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예산의 경우에도 심의를 통해서 증액할 것은 증액하고 삭감할 것은 삭감할 수 있는 심층적인 논의가 되어야 하는데 너무 단편적인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이 아쉬움. 추경의 경우 예측해야 하는 것을 예측하지 못하면 기업에서는 문책의 대상이 됨. 예상할 수 있었던 것을 최대한 반영하려는 노력이 요구됨.

유신재(위원장)

국제문화교육원 공사의 경우 수강료 수입을 늘리기 위해 교육원에서 2학기에 제안된 것으로, 수입을 증대시키겠다고 하는데 회계적으로 추경예산이 늘어날 것을 우려하여 이를 진행하지 않을 수는 없음. 현재 등록금 동결 기조에서 수입을 늘리려는 목적으로 진행하려는 사업을 미루라고 할 수는 없음.

박시남(기획예산팀장)

2020회계에서는 최대한 예측할 수 있는 것은 반영하려고 했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더 줄어나갈 수 있으리라고 봄.

김달원(학교법인 사무팀장)

학교회계를 비교할 때 본예산끼리 비교하거나 추경예산끼리 비교하는 것이 의미가 없어 보임. 전년도 추경예산과 올해의 본예산을 비교해야 명확한 증감을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됨.

김장훈(기획예산팀 예산파트장)

현재 본예산끼리 혹은 추경예산끼리 비교하는 이유는, 모든 불확실성이 반영된 추경예산과 경상적인 것들만 편성된 본예산을 비교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되기 때문임.

김달원(학교법인 사무팀장)

기금 추경의 경우, 학과에서도 예전과 동일한 수준으로 본예산을 잡고, 필요한 것이 발생할 때마다 기금을 인출하여 사용하는 것을 너무 편의적으로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우려되는 부분임. 이는 예산편성 시의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음. 그래서 이사회에서도 추경예산에 대한 지적이 있었던 것임.

김장훈(기획예산팀 예산파트장)

각 부서에서 단위기금을 사용하지 못하게 했을 때의 반발도 생각해야 함.

박시남(기획예산팀장)

기금 인출을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예산을 과다 편성하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함. 각 부서에서 어떤 사업이 필요할 경우 몇 개월 전부터 내부적으로 검토, 품의를 거쳐서 기금을 사용하겠다고 하지만, 이를 1년 단위로 미리 정하는 것은 기간이 너무 길.

김창배(외부전문가위원)

기업의 경우 1년 혹은 5년까지도 예측을 하여 예산을 짜게 되고 거의 모든 부분이 예측이 가능한데, 학교회계와 기업회계가 다르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사전적으로 예측하고 계산하려는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됨.

박시남(기획예산팀장)

학교가 기업과 다른 점, 각 단위 부서에서 사전에 예측을 하여 기금을 인출하게 되었을

때, 기금 예산 잔액이 남게 되면 모두 학교로 흡수되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정말 확실한 사안이 아닌 이상 기금 인출을 부담스럽게 생각함. 올해에도 산학트랙 기금 인출 분 중 3년 간 사용하지 않고 예산에 잡혀 있는 자금을 모두 본부로 회수하였는데, 부서에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확실한 사안에 대해서만 몇 달 전부터 계획을 수립하여 진행하려고 하지 미리 인출하려고 하지 않음.

박시남(기획예산팀장)

기업회계와 달리 사업을 하기 위해 기금 통장에서 자금을 사용하겠다고 통보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금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여 수입예산과 지출예산에 배정을 받아야만 사용할 수 있음. 예산을 운영하다 연말에 돈이 부족할 때 통장에서 자금을 빼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사용할 시점에 기금을 인출한 후 예산을 배정받고, 그 이후 사용을 하는 절차가 학교회계에 존재함.

김창배(외부전문가위원)

예산에서 예를 들어 올해 10억 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일단 미리 기금을 인출하여 배정해 놓고 사업을 할 때 사용하면 되지 않는지.

김장훈(기획예산팀 예산파트장)

학교회계에서는 예산을 편성할 때 구체적인 산출근거가 필요하며 이는 대학 예산회계 원칙을 따름. 구체적인 산출근거 없이는 예산 편성이 불가능함.

전종호(학생문화처장)

학교회계가 일반회계와 다르다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으로 생각됨. 실제로 학과를 운영하다 보면 연중에 예측하지 못하는 기금 인출 건이 자주 발생하게 됨.

김장훈(기획예산팀 예산파트장)

학교회계가 기업에 비해 자금의 관리 주체가 여럿인 점도 다른 점임. 기업의 경우 경영자가 모든 자금을 통제하지만, 학교의 경우 본부 외에 각 부서의 단위기금은 각 부서가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규모를 파악하기에도 어려움이 있고 각 학과에서 연중 발생할 수 있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추경은 불가피하다고 봄.

김달원(학교법인 사무팀장)

학교 본예산을 볼 때 숫자적인 내용은 일일이 따지기는 어렵고 이 회의에서는 전반적인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함. 현재 학교 수입 측면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대학원 충원율 감소임. 일반대학원 충원율이 60% 대로 서울 주요 사립 대학교들보다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음. 일반대학원에서 등록금 수입이 감소되는 것은 한 번 감소되는 것이 아니라 매년 수입 감소가 누적되는 상황임. 등록금 수입은 학부에서 어느 정도 만회한다고 하면, 그다음 문제는 등록금 수입을 위해 뽑은 약 1,000명 정도의 외국인 학부 유학생들이 있는데, 대부분 신문방송학과와 경영학과에 입학한 외국인 유학생으로 인해 수업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임. 이러한 흐름을 위원들이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함.

둘째로, 법인의 법정부담금이 15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줄어든 내용은 실질적으로 추경에서는 5.6억 원이 줄어든 것인데, 예산은 해당 금액으로 잡았지만, 실질적으로는 집행이 덜 된 부분이 있었음. 법인전입금은 경상비 전출과 법정부담금 전출로 나눌 수 있는데, 추후 설명을 하겠지만 경상비 전출의 경우 장학금과도 연결이 되지만 기부금과도 연결이 되어 있음. 타 대학의 경우 기부금 등 법인이 전출금을 위한 노력을 할 때 학교와 협력하여 노력을 하고, 기준보다 초과되는 금액은 법인을 통해 전출하면서 학교 지표를 향상시키는 방법을 택하곤 함. 그런데 우리 대학의 경우에는 법인과 학교가 각자 따로 노력을 하고 있음.

기부금의 경우 학처장회의 등을 통해 기부금 유치 노력을 하였고, 3차에 걸친 논의 끝에 컨설팅 업체를 선정하여 진행하고자 했는데 서울 주요 대학들의 기부금 유치 노하우를 갖고 있는 업체였음. 그 노하우를 이용하여 기부금 유치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하는데 모종의 이유로 무산이 되었고, 법인에서도 기부금 유치 노력을 위해 이사장과 상임이사가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공문까지 내려보내기도 하였음.

기부금 유치 노력을 위해 개교 60주년 행사를 통한 유치를 하겠다고 발표 자료에 적혀 있는데, 예전에 학처장님들을 모시고 논의하였을 때 동문들과의 관계 문제 등을 고려하여 기부금 유치를 위한 행사보다는 각 학과 단위를 행사를 기획하는 논의를 한 적이 있음. 이 또한 예전에 논의한 것과 맞지 않는 내용임.

이러한 점들을 볼 때 숫자 하나에 집중하기보다는 전반적인 학교의 세부사항이 설명되고 학교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려는 흐름에 대한 논의를 중점적으로 가져가야 함.

박시남(기획예산팀장)

기부금을 법인을 통해 전출하는 것은 교육부 감사 지적사항으로 지적받게 되어, 예전의 방식을 따를 수 없게 되었음. 현재는 법인이 따로 기부금을 유치하지 않는 이상 해당 방식은 어렵게 됨.

대학원 충원을 감소 문제는 현재 모든 대학들이 겪고 있는 문제이며 대학원에서도 자구적인 노력을 하고 있고 BK21 국고사업 유치를 위해 학부와 본부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임.

김달원(학교법인 사무팀장)

타 대학에 비해 대학원 충원율이 감소되는 비율을 따져 보면 우리 대학이 큰 폭으로 감소되고 있음.

박시남(기획예산팀장)

대학원 충원율 감소는 일반대학원도 어느 정도 문제점을 갖고 있지만 경영전문대학원과 같은 전문, 특수대학원의 충원율 감소도 큰 부분을 차지함.

송방호(경영전문대학원 원우회장)

경영전문대학원의 경우 과정 신설을 통해 배 이상 학생이 충원된 것으로 알고 있음.

유신재(위원장)

개교 60주년 행사를 통한 기부금 유치는 신임 동문회장님과 논의하여 결정한 내용이며, 발전홍보팀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기부금 관련 컨설팅 업체의 경우 본부에서 1차로 컨설팅을 의뢰한 바 있으나, 결과를 심사한 결과 우리 대학 교수들에게 연구비를 주고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대다수였기 때문에 큰 금액을 추가로 투입하여 컨설팅을 계속 받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결론에 도달하여 중단되었음.

김창배(외부전문가위원)

결론적으로 올해 본예산 설명에서 증감 사유를 고려할 때 수입, 지출 상황은 어떻게 설명이 되는지.

김장훈(기획예산팀 예산파트장)

예년 추세에 따르면 학부는 입학금 감소로 약 4억 원, 대학원은 미충원으로 18억 원 정도 예산을 삭감하였음. 이 때문에 등록금 수입이 22억 원 가량 삭감이 되었지만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통해 23억 원 이상의 수입 증가가 예상됨. 올해는 오히려 편입생 증가로 인해 8억 원 가량의 수입 인상을 기대할 수 있음. 다만, 외국인 유학생 수나 대학원 충원 상황에 따라 실질적인 수지는 달라질 수 있음.

김창배(외부전문가위원)

명예퇴직금의 경우 명예퇴직을 원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신청을 받아 허용해 주는 것이 어떻겠냐는 의견을 낸 적이 있는데, 몇 년 전의 예산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명예퇴직을 하지 못하게 하였음. 올해의 경우에는 추경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됨.

박시남(기획예산팀장)

명예퇴직의 경우 작년에 명예퇴직기금을 적립하였고, 신청을 받아 추경을 통해 진행할 예정임.

김장훈(기획예산팀 예산파트장)

현재 매년 명예퇴직을 대비하여 수퇴직기금을 적립하고 대상자를 정해 지출하고 있음.

김창배(외부전문가위원)

교원도 원하면 명예퇴직을 신청할 수 있는지

유신재(위원장)

교원의 경우 상당액의 퇴직금을 준비해야 함.

전종호(학생문화처장)

교원 명예퇴직 시 충원 문제 등의 이유로 교원들은 되도록 붙잡아 두고 있음.

김창배(외부전문가위원)

본예산 세부사항을 보면 지속적으로 학교 예산이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음. 학교가 나빠지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매년 예산 심의에 위원으로 참가하지만 계속 예산이 줄어들게 되면 학교가 심각한 문제에 다다르고 있음을 느낄 수 있음. 대외평가에서도 서강대학교가 8, 9위, 혹은 더 아래에 위치하며 교수 연구 등을 제외하면 계속 평가도 나빠지고 있음.

예산 수입 상황을 볼 때 각종 등록금, 전입금, 기부금의 증감을 보면 결국 동문회에서 기부금을 유치하는 것 외에 학교 수입을 증가시키고 학교를 좋아하도록 만들 차별적인 방법이 없다고 봄. 이러한 점을 볼 때 재단과 학교 측에서 동문회에 전향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학교의 거버넌스에 동문회를 참여하도록 하여 지원을 이끌어 낼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됨.

김달원(학교법인 사무팀장)

우리 대학의 학생 중도 탈락율이 입시제도 변화 등으로 인해 2% 수준으로 상승하였음.

전종호(학생문화처장)

학생부종합전형 등으로 인해 시험을 준비하지 않아도 쉽게 입시를 통해 학교를 옮길 수 있게 되면서 학교에 덜 만족하는 학생들이 중도 탈락을 하는 사례가 늘고 있음. 오리엔테이션의 경우에도 교외로 나가는 대학이 우리 대학이 유일하다고 알고 있는데, 학생들의 학교에 대한 충성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보고 있음.

김형은(학부 총학생회장)

학생들이 중도 탈락을 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대학의 재정적인 부분에 만족을 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봄. 각종 학교 커뮤니티를 보아도 재정적인 문제가 주요 주제가 되고 있음. 우리 대학이 교육 기관으로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기부금과 같이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결국 법인이 가장 노력을 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 학생 측의 입장임.

김달원(학교법인 사무팀장)

예전에 우리 대학이 일류 대학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은 재정이었음. 유명 대학의 교수를 더 많은 급여를 주고 모셔오곤 했던 90년대 초반에는 각 학과의 평가가 매우 좋았음. 최근에도 학교에서 연구수월성향상위원회를 열어 노력을 하고 있지만, 현재는 연구력이 좋지 않은 점이 큰 문제이기도 함. 10% 이상의 교수들이 의무연구업적이 미달하고 있는 등 연구력 향상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해야 함.

법인이 유치하는 기부금의 경우 일반 신자들에게 일정 금액을 유치 받아 법정부담금에 쓰는 등 노력을 하고 있고, 학교 기부금 유치 시에 법인에서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하였음.

김창배(외부전문가위원)

전기이월자금이 50억 원 정도 수입 항목에 들어있는데, 지출과는 어떻게 대응이 되는지

김장훈(기획예산팀 예산파트장)

전기이월자금 대부분은 연구비나 학생경비로 쓰임.

김창배(외부전문가위원)

수입의 전기이월자금을 지출로 다 소비하게 되면 이월금이 더 이상 생기지 않는지

김장훈(기획예산팀 예산파트장)

차년도에는 이월금이 발생하지 않게 됨

김창배(외부전문가위원)

전기이월자금의 재원이 기금에서 인출된 예산을 말하는지

김장훈(기획예산팀 예산파트장)

기금 재원은 아니며, 교내 연구비의 경우 당해연도에 다 쓰지 못하는 경우 이월하여 차년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교내 연구비 외에 예를 들어 국고의 경우에도 당해연도에 다 소진하지 못한 경우 차년도에 일정금액을 이월하여 사용이 가능함

박시남(기획예산팀장)

이번 본예산부터 적립이월을 이월금의 형태로 바꾸어 회계처리하는 방식은 기존의 148억 원 전용 건을 이번에 모두 처리하는 것으로, 이후 감사를 대비하여 예산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시행하게 된 것임.

김장훈(기획예산팀 예산파트장)

2021년도 본예산의 전기이월자금도 올해 수준과 비슷할 것으로 보임. 또한 올해부터 산학 트랙기금 등 기금 인출 후 3년 이상 이월하지 못하게 하는 등 이월금을 최소화하기 위해 본부에서 노력을 기울여 매년 4~5억 원 정도 이월금을 소멸시킬 순 있으나 전체 이월금 수준으로 보면 큰 금액은 아님

박시남(기획예산팀장)

추경을 줄이고자 사업을 예측하며 본예산에 기금을 미리 인출해야 한다는 말씀도 이것과 관계가 있는 것이, 올해의 사례와 같이 기금 인출한 뒤 오래된 자금을 기획처에서 회수하고 있기 때문에 단위부서에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확실한 사업이 정해지지 않으면 기금을 미리 인출하여 예산을 배정하려고 하지 않고, 이는 결국 추경으로 기금을 인출하게 됨

김달원(학교법인 사무팀장)

교육부에서 감사 시 전기이월자금을 점검할 것인데 전기이월자금이 올해 회계정책으로 크게 변동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지

김장훈(기획예산팀 예산파트장)

제도를 바꾸면서 현재 바뀌는 전기이월자금 규모가 적정한 수준인지를 검토해 보았으나,

타 대학에 비해 높은 수준이 아님을 확인하였음.

김달원(학교법인 사무팀장)

법인 차원의 전입금 증대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도 좋지만, 예산을 전체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필요하다고 봄. 예를 들어, 전년도 일반회계 수지차액이 법인전입금, 산학협력단 전입금, 국제문화교육원 전입금을 합친 수치임. 예전 이야기를 하자면, 148억 원의 불법전용 자금을 어디로 썼는지 알고 있는지.

김장훈(기획예산팀 예산파트장)

건물 건축에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음

김달원(학교법인 사무팀장)

유기풍 총장님 재직 당시 가장 통제했던 부분이 남양주캠퍼스 이전 문제였음. 그래서 산학협력단에서 전입되는 것을 최대한 막고 산학협력단 기금을 최대한 적립하였음. 그 과정에서 학교 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기존의 기금을 전용하여 사용하게 된 것임. 학교 예산을 절약하여 수지를 흑자로 만드는 것은 좋은 일이나, 산학협력단의 경우 적립금 규모가 많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음.

유신재(위원장)

당시 148억 원 전용금액을 갚기 위해 최소한의 기금을 남기고 기금을 일부 전출하였음. 다만, 산학협력단에서 그 이상 전출할 경우 산단 운영에도 문제가 발생함.

김달원(학교법인 사무팀장)

즉, 말하고자 하는 바는 수지차액을 흑자로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교회계뿐만 아니라 학교 전체 차원에서 예산이 얼마나 감소 되었는지도 분석해 볼 필요가 있음. 이전에 자금이 필요했기 때문에 산학협력단 등에서 기금을 많이 전출하였으나, 추후 자금이 필요하게 될 경우 산학협력단 등에서 자금 확보가 불가능하게 되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져야 함. 단순히 수지가 흑자가 된다는 것이 일견 학교가 좋아지고 있다고 생각될 수 있지만 학교 전반적인 차원에서는 위기일 수 있다는 점도 인식해야 함.

김창배(외부전문가위원)

일반적인 추론으로 생각해도 학교가 위기라는 점이 공감되며, 실제로 산학협력단, 법인 등에서 전입금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 결국 이사회에 동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여러 조치를 통해 학교 자금을 확보할 활로를 찾아야 함. 매년 예산 심의 시에도 결국 같은 논의를 반복하게 될 것이고, 학교 전체 차원에서 산단과 법인에서 자금을 끌어오는 것이 실제로는 학교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며 결국 새로운 자금 확보를 해야만 학교가 좋아질 수 있음.

김형은(학부 총학생회장)

학생들이 누구보다도 학교의 재정적 어려움을 인지하고 있음. 이러한 재정적 어려움을 타

계할 방안을 학교에 여러 번 요구했으나 특별히 달라지지 않는 것이 현실임

김창배(외부전문가위원)

현재 새로운 동문회장이 학교와 좋은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그 전에 학교의 위기에 대해 인식하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함. 학교가 더 나빠지게 되면 다시 일으켜야 할 시기를 놓치게 될 수도 있음.

정민재(학부 추천위원)

법인에서 학교 구성원들이 다 같이 노력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지만, 학생의 경우 1천억 원에 달하는 등록금으로 학교 재정을 구성하고, 교원도 연구수월성위원회를 통해 연구력 향상에 힘쓰고 있음. 본부도 운영비 절약 노력을, 산단은 기금 전출로, 동문들도 학교와 함께 학교가 나아갈 방안에 대해 노력하여 주시고 있음. 하지만 결국 가장 책무성이 요구되는 곳은 법인인데 오히려 올해 예산에서도 평균 1% 수준의 법인전입금에서 더 감소한 부담금을 전출하겠다는 것은 법인의 책무성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볼 수 있음.

김달원(학교법인 사무팀장)

법정부담금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자면, 예전에는 법인의 결정에 따라 금액을 조정할 수 있었으나 현재는 교육부에서 법인의 재무상태를 조사하여 필요경비 외에는 모두 전출하도록 변경되었음. 법인 수익사업을 위한 노력의 경우 첫째로 건물의 경우 많이 노후되었기 때문에 수익사업을 늘리기 어려우나 한 건물은 리모델링을 통해 수익사업을 증대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음. 둘째로 법인에서 수익사업을 고민 중에 봉안당 사업을 염두에 두고 이사장님과 상임이사님이 기부자들을 만나 의견을 타진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학교에 전출해야 하는 자금이 부족하면 빌려서라도 법인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노력하였음.

교육부에서 법인의 재무상태를 조사한 후 7억 원을 낼 수 있는 여력이 있는데 5억 원만 전출하고 있다고 하면 법인의 책무성에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겠으나 현재는 그 여력보다도 많이 내고 있는 상황이고, 그 자금은 빚을 내서 전출하게 되는 것임. 그래서 법인으로서 책무성을 다하려는 노력에 있어서는 타 대학과 비교했을 때 자랑스럽게 생각함.

한편, 이사회에서 약속된 내용 중 예수회에서 약속된 부분은 지난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말씀드린대로 상임이사님과 이사장님께 우려 사항을 전달하였고, 2월 이사회에서 부족분을 보충하는 안건이 상정될 예정임.

다만, 걱정되는 것은 이 이후 수익사업 운영 등에 대한 부분이고 법인이 계속 노력해야 할 사안임.

또 안타까운 것은 기부금 등 여러 가지 자금 확보 노력을 할 때, 법인 혼자서 움직이는데는 한계가 있어 총장님과 이사장님 혹은 법인이 같이 협력하여 시너지를 내야 하지만 이 점이 협력이 잘 되지 않는다는 점임. 예수회 신부님들도 아쉬운 것이, 12년 간 외부인 총장 재직 시절에 총장님마다 나름 각자 노력을 했겠지만 자신의 영역을 위한 노력이었다고 생각되며 실제로도 많이 쌓아놓았던 적립금을 계속 소진하여 왔음. 그 이후 예수회 신부님이 총장님으로 재직하여 법인, 예수회와 협력하여 시너지를 냈으면 좋겠으나 이 점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긴밀한 협력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임.

유신재(위원장)

그동안 모아놓았던 적립금을 지난 3분의 총장님 재직 동안 약 700억 원 이상 소진하였음. 148억 원 전용 건의 사용 출처를 보아도 100억 원 정도가 건물 건축에 사용되었음. 이 또한 원래 기금이 없는 상황에서 다른 목적의 기금까지 전용하며 진행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다 갚고 있음.

본부, 교직원, 학생뿐 아니라 법인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며 이에 대해 지난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법인의 개선방안 등 설명을 요청하였고 예산 심의 이후 설명하겠다고 하시니 계속 예산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음.

박시남(기획예산팀장)

현 총장님이 하신 일은 지난 12년간 문제가 되었던 것을 해결한 것이라 할 수 있음. 148억 전용 건을 비롯하여 외부에서 자금을 빌렸던 것도 2020년 안에 변제가 완료될 것이고, 부동산 펀드에서 계속 손실이 났던 것도 기금 적립을 통해 다 만회하였음.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재정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것들을 모두 정리하고 다시 기초를 만들었다는 것만으로도 큰일을 하신 것이라 생각하며 앞으로의 방향은 이 기초 위에서 우리 대학을 어떻게 다시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지 고민해야 함..

김창배(외부전문가위원)

외부 총장들이 와서 적립금을 소진하였다는 단편적인 사안으로 학교가 나빠지게 되었다는 결론은 동의하지 않음. 외부 총장들도 사욕을 채운 것이 아니라 학교를 위해 건물을 세우고 자금을 사용했다면 불가피하게 썼을 돈이라고 생각되며, 그렇게 자금을 사용하지 않았으면 학교가 더 악화되었을 수도 있었음.

전종호(학생문화처장)

학생문화처장으로서 우정관에서 근무하면서 우정관 건물에 대한 의구심이 듦. 처음에는 기부금으로 건물을 짓게 된 것으로 알았는데 결국 교비가 94억 원이 투자된 건물임. 학교 건물을 지으려면 경제관처럼 잘 지었어야 했는데 사무실이나 동아리방에 외풍이 부는 등 잘못 지은 건축물이라고 볼 수 있음. 즉, 교비가 잘못 사용되었다는 의미임.

김창배(외부전문가위원)

12년간의 외부 총장 재직 중 공도 있고 과도 있으리라고 보나 그분들도 전문가로서 많은 노력을 다했다고 생각함. 다만, 현 총장 체제에서 지난 문제를 안정화시킨 것이 업적이라고 하는데, 학교는 계속 좋아지는 것이 목표이고 좋은 인재를 양성하여 학교과 국가에 기여하는 것이 목적인데 안정화가 현 총장의 잘한 일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박시남(기획예산팀장)

학교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결국 기초가 중요한데, 처음 부임하고 148억 원이라는 적자를 마주하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인, 산학협력단, 본부가 많은 노력을 하였음.

김창배(외부전문가위원)

그렇다면 내년에 학교가 좋아질 것이라 보는지.

전종호(학생문화처장)

현재 채무가 많은 학교들이 겪고 있는 상황을 생각했을 때, 일단 학교에 채무가 없다는 것만으로도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함.

김형은(학부 총학생회장)

학교에 대해 객관적으로 바라보자면, 전임 총장 당시의 계획은 철우만레사교육원이나 남양주캠퍼스 이전 사업을 보아도 결국 지속적으로 돈이 소모되었고 거액의 채무를 남기는 등 돈이 낭비된 사업이 많았다고 보며 학교가 발전되었다고 느끼기 어려움.

김달원(학교법인 사무팀장)

등록금심의위원회에 참여하면서 다만 재정적으로 모든 경우에 법인이 잘못된 것으로만 지적이 되어있는데 이러한 것은 지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김장훈(기획예산팀 예산파트장)

수지차액 설명 시 수입 감소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법인전입금을 표현하는 것임.

김창배(외부전문가위원)

철우만레사교육원 운영 시에 발생하는 수익은 있는지

전종호(학생문화처장)

각종 MT나 학생 행사 등 각종 프로그램을 철우만레사교육원에서 진행할 계획임.

김형은(학부 총학생회장)

RA관 외부도장공사의 경우, RA관이 많이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내부의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공사해야 한다는 의견을 자주 냈는데 외부도장공사만 지정사업으로 선정이 된 것인지

김장훈(기획예산팀 예산파트장)

해당 부서에서 올린 지정사업에 대해 기획처에서 심의하는데 관재시설팀에서 해당 내용을 사업 신청하지 않은 것임. 추후 부서에 요청하여 지정사업에 반영되도록 하면 좋을 것 같음.

유신재(위원장)

RA관은 현실적으로 신축을 해야 할 정도로 노후화되어 일부 공사로는 개선하기 어려움.

전종호(학생문화처장)

법인전입금 관련 설명 중, 법인재정규모가 2018년 대비 2019년이 절반으로 줄어든 이유

는 무엇인지

김달원(학교법인 사무팀장)

첫째로 법인 기부금, 즉 예수회 기부금 규모가 많이 줄어들었고 기타 교육 외 수입에서 법인이 보유하던 주식 약 2억 원을 매매했음. 법인 소유 건물도 노후되는 등 전체적으로 법인 수익사업 규모가 줄어들었음.

전종호(학생문화처장)

법인전입금 설명과 관련하여 예수회에서 약속하기로 한 부분을 지급하겠다는 안건을 법원에서 이사회에 올리겠다는 것인지

김달원(학교법인 사무팀장)

해당 금액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어 최선을 다해서 어떤 방법으로든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이사회에 안건을 상정할 것임. 이를 통해 확보된 기금으로 법인에서는 대학평가 인증 등 학교 평가 지표에 문제가 없도록 협력할 것임.

다만 안타까운 것은 토마스모어관, 철우만례사교육원 건축비 지원, 편입생 증가를 위해 교육용 기본재산에 투자한 내용 등을 고려할 때, 법인이 정량적으로는 조금 미흡하지만 학교를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것은 알아주시기 바람.

전종호(학생문화처장)

법인 재정 규모가 줄어드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김달원(학교법인 사무팀장)

법인 재정 규모가 줄어드는 것에 대해 법인 재정위원회에서도 우려가 있어서 종합부동산세 등을 고려하여 임대사업자도 검토하고 있는 사항임. 법인 재정 규모를 늘리는 방법은 학교와의 기부금 협력 등도 있을 수 있고, 납골당 사업을 추진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임. 앞으로 확보하기로 한 16억 원으로 4~5년 정도 학교 평가 등에 문제가 없도록 지원할 것이지만, 그 이후 자금이 고갈되면 이후 법인의 수익사업이 현재와 비슷한 수준이라면 문제가 발생할 것임. 예전에는 법인 소유 보증금 등으로도 학교를 많이 도와주었지만 교육부에서 이미 보증금 사용에 제한을 거는 등 법인도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법인에서도 최대한 수입 증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알아주시기 바람.

한편, 동문회에서 학교를 도와주겠다는 말씀을 동문위원께서 자주 하셨는데, 학교를 도와주실 때는 목적이나 계산에 의해서 보다는 순수하게 도와주시길 요청드립니다. 학교의 어려움에 대해 많은 설명을 들으셨으므로 어려움을 잘 이해하여 주시고 다같이 협력하여 주시기 바람.

유신재(위원장)

법인의 설명에 의하면 법인전입금 규모가 각종 평가나 국책사업에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하지만 충분히 영향이 미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인에서도 책임감을 갖고 확실한

말씀을 해주셔야 심의 · 의결의 기구인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위원들도 모두 동의할 수 있다고 봄.

법인을 공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 있었던 일들을 명확히 밝히고 법인에서 책임감을 가져야 하며, 정부에서도 해당 사안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법인에서 이에 대한 확실한 확답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김달원(학교법인 사무팀장)

정부에서 법인의 상황을 볼 때 절대적인 규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현재 상황에서 얼마나 노력을 하느냐를 보고 있음. 정부에서는 법인에 약 7억 원 정도의 법정부담금을 요구하나, 법인은 일전에 약속을 한 것도 있어 12억 원 이상을 지출하고 있고, 본예산의 법정부담금 6억 원도 8억 원으로 증액을 진행할 것임. 결론적으로 정부에서 바라보는 방향은 절대적인 평가가 아니기 때문에 기관인증평가 등 우려되는 평가지표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봄.

다만, 절대적인 수치가 떨어지는 것은 어느 정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함. 일반 기부금 수입의 경우 300명 정도 회원을 확보하여 7~8천만 원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수치이며, 예수회에서도 기부금을 내지만 사실상 한계가 있는 상황임. 결론적으로 법인 및 예수회 사도직 위원, 상임이사, 이사장, 총장 모두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상황임.

법인에서도 법인 수익사업에 의한 수입, 예수회 기부금 등이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상황에서 돌파구 마련을 고심하고 있음.

박시남(기획예산팀장)

법인이 어렵다는 점도 인정하고, 약속된 기부금이 5년이 아닌 3년만 지원이 되었고, 남은 금액은 법인에서 추후 요청하겠다는 설명으로 이해가 됨. 이 점에서 이사회도 법적인 기구이지만 등록금심의위원회에도 법적인 의결 권한이 있는 회의로서 같이 협력하여 노력해야 함.

김달원(학교법인 사무팀장)

법인의 계획은 당시 약속한 금액은 확보를 하겠지만, 한꺼번에 내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각종 평가에 발맞추어 학교에 문제가 없도록 자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음.

전중호(학생문화처장)

법인의 재정 규모에 따라 비율을 맞추기 위해 법인전입금을 줄이게 된 것인지

김달원(학교법인 사무팀장)

비율을 맞추기 위해 법인전입금을 줄인 것은 아니며, 실제로 기부금 수입 등이 줄어든 것임.

김형은(학부 총학생회장)

법인의 어려움은 이해하지만, 학생들에게 현재의 상황을 공유했을 때 2016년도의 자료와 비교해 보면 학생들은 법인의 어려움에 대한 설명을 받아들이지 못할 것임. 학교는 교육 기관으로서 교육의 책무가 있고, 법인은 재정을 담당하는 책무가 있는 만큼, 법인과 예수회가 책임을 다하도록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봄.

김달원(학교법인 사무팀장)

다시 말씀드리자면 법정부담금은 교육부에서 부과하는 것보다 적게 내려보낼 수 없으므로 법인은 교육부 기준에 따라 책무를 다하면 됨. 예수회의 경우 예수회 기부금 부족분 16억 원에 대해 약속한 바를 지키겠다는 설명을 이미 드린 바 있음.

박시남(기획예산팀장)

2016년에 이사회 회의록 등 관련 공문이 있었음에도 현재 이러한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번 사항에 대해서도 확실한 공문을 받는 것을 전제로 하여 예산이 통과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전중호(학생문화처장)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예산 심의 및 의결에 관한 결정을 연기할 수 있는지

박시남(기획예산팀장)

필수 의결 절차로서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예산이 통과가 되어야만 다음 절차가 진행됨.

김달원(학교법인 사무팀장)

지난 등심위에서부터 법정부담금 관련하여 이미 위원분들께 여러 번 설명을 드렸고, 이사장 및 상임이사님께도 설명을 드렸음. 법인 사무팀장으로서 개인의 예측에 의해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므로 발언 내용과 계획을 믿어주시기 바라며 이 내용을 회의록에 기입해도 괜찮음.

전중호(학생문화처장)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이에 대한 확정적인 확답이나 공문을 받고 예산이 통과되어야 한다고 생각됨.

박시남(기획예산팀장)

법인이 약속한 부분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예산을 통과한다는 조건부 통과도 고려해 볼 사안임.

전중호(학생문화처장)

만약, 추후 약속한 부분이 이행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예산이 의결된다면 책임은 위원들에게 있음.

박시남(기획예산팀장)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의결한다는 것은 법인이 정한 전입금 금액을 수용하겠다는 의결이 되기 때문임.

김달원(학교법인 사무팀장)

이번 회계에 증액하기로 하여 전출할 8억 원의 경우 학교 평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법인에서도 당연히 지원할 것임.

박시남(기획예산팀장)

올해 배정된 전입금 예산은 8억 원이지만, 약속된 내용은 그 이상의 금액임. 위원들이 원하는 것은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지원에 대한 확답을 받는 것임.

유신재(위원장)

2016년 당시 법인전입금 내용이 이사회 회의록에 담길 것이니 믿어달라고 학생들을 설득하였고, 만약 법인에서 변경된 내용이 있으면 그에 대한 구성원들의 이해를 구하고 대책을 내놓았어야 함. 그러면 그에 상응하는 지원에 대한 확답이든 공문이든 무언가를 가져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예산을 통과시켜달라고 하는 것은 어폐가 있음. 위원들이 김달원 법인 사무팀장님의 말씀은 믿을 수 있어도, 법정부담금 지원 내역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예산이 승인된다면, 추후 이 자리에 있는 등록금심의위원회 위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게 되는 것임.

김달원(학교법인 사무팀장)

현재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안건이 예산 심의이므로 추경예산과 본 예산의 내용은 존중을 하고, 법인에서 학교로 보낸 '법인은 2020년 2월 5일 이사회에 경상비 및 법정부담금 전출로 학교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자금 확보에 관한 사항을 안건으로 다루기로 함'이라는 공문 내용이 확실히 있는데 더 필요한 내용이 있는지

박시남(기획예산팀장)

위원들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그냥 넘어갔을 수도 있었던 사안임. 그리고 원래대로라면 변경된 사안에 대해 내부절차를 거쳐 이사회를 거쳐 법인 예산을 편성 후에 학교에 통보하는 절차였어야 했음.

김달원(학교법인 사무팀장)

법인의 입장은 현재 추가경정예산안과 본예산안은 그대로 진행하며, 내년 예산의 법인전입금 6억 원을 학교 평가지표를 맞추기 위해 8억 원으로 인상할 것임. 그 이후에 평가에 맞추어 지속적으로 8억 원 이상을 전출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음.

법인에서는 교육부에서 승인하는 법정부담금이 많은 적든 얼마가 부과되든 학교 평가를 맞추기 위해서 8억 원을 맞추기 위해 자금 확보를 하려는 계획도 갖고 있음.

전종호(학생문화처장)

이사회에서 자금 확보에 관한 세부사항이 결정되면 그것을 전제로 예산을 통과시킬 수 있는지

유신재(위원장)

예산안을 법인에서 교육부에 신고해야 하는 기한이 1월 22일까지임.

박시남(기획예산팀장)

그 기한에 예산안을 제출하지 못할 시 준예산 체제로 전환되게 됨.

유신재(위원장)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이사회로 안건이 올라 갈 수 없는 절차적인 어려움이 있음.

김달원(학교법인 사무팀장)

이사회가 2월 5일에 예정되어 있으며 1월 28일에 소집을 하게 되는데 자금 확보에 대해 그 안건을 보시면 될 듯함.

김형은(학부 총학생회장)

중요한 것은 안건 상정이 아님. 기존에 회의록에 기재된 내용도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데 안건으로 올라와서 다시 같은 결과가 나온다면 안 될 것임.

김달원(학교법인 사무팀장)

위원들이 우려하는 사항은 이해하지만, 다만 본예산 심의와 자금 확보가 서로 각각 승인 될 수 있는 영역인데 왜 연관을 시키는지 이해할 수 없음.

유신재(위원장)

문제의 본질은 예산에 반영된 법정전입금 금액을 위원들이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것임. 사립학교법에 의하면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이 진행되어야만 이사회로 안건이 넘어갈 수 있으며, 학교 설립자 및 책임자는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도록 되어있음.

송방호(경영전문대학원 원우회장)

자금 확보와 같은 중요한 사항은 회의 이전에 사전 논의가 되었어야 했던 사안임.

유신재(위원장)

그래서 지난 제1차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법인전입금에 대한 확실한 계획을 달라고 요청 했던 것임.

김달원(학교법인 사무팀장)

예산을 짜는 프로세스는 법인에서 법인 예산을 이사회에서 승인하고 그 자료를 학교에 통보하면 학교는 그에 대응하여 예산을 짜는 것이지, 법인전입금 감소 등에 대한 승인 여부는 등록금심의위원회가 결정권이 없음.

박시남(기획예산팀장)

그 프로세스에 의해서 학교는 예산을 편성한 것이고, 그 예산을 통과시키는 것이 등록금심의위원회의 권한임.

유신재(위원장)

법인 예산은 법인에서 편성하는 것이고, 그 전입금 예산에 대해서는 학교 본예산이기 때문에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되는 것임. 그 액수가 약속한 금액과 다르고, 그것이 문제가 되었는데 오늘 법인에서 밝힌 내용은 올해 예산상 전입금이 6억 원에서 8억 원으로 증액되었다는 것일 뿐, 약속된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이 제시되지 않은 것임. 그러므로 약속된 금액에 대한 충분한 확답이 없이는 예산안이 통과되기 어렵다고 봄. 위원들은 공적인 약속을 지켜달라고 하는 것임.

박시남(기획예산팀장)

구체적으로 변경된 사안을 법인으로부터 위원들이 요구하는 것임. 이사회 안전을 상정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사회에서 또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은 믿지 못하는 것임.

김달원(학교법인 사무팀장)

현재 약속된 16억 원에 대해 약속을 지켜야 된다는 것과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위원들에게 말씀드리고 있음.

김창배(외부전문가위원)

약속된 내용을 명확하게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지

김달원(학교법인 사무팀장)

약속된 예수회 기부금 중 미이행된 16억 원을 확보하여 2~3년 안에 전부 내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각종 평가에 대비해 수년 내에 효율적으로 내려보내겠다는 것과 2020년부터는 평가에 영향이 없도록 8억 원 이상으로 전입금 금액을 정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유신재(위원장)

해당 내용에 대해 공식적인 공문을 요청드립니다.

김달원(학교법인 사무팀장)

결재되는 대로 위원들에게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방호(경영전문대학원 원우회장)

위원들은 그 공문 내용을 보고 예산안을 통과시키도록 하겠음. 21일에 회의를 다시 소집하여 공문 내용을 보고 교육부 기한에 맞추어 예산을 결의하면 될 것임.

김달원(학교법인 사무팀장)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 첫째로 법인에서는 전입금 수치가 중요하고 노력을 많이 하겠다는 점을 알려주시기 바람. 둘째로는 등록금심의위원회 예산안을 보았을 때 학교의 전반적으로 악화되는 재정 상황, 대학원 충원을 감소, 그리고 16%의 교수님들이 의무연구업적이 부족한 점 등 학교의 좋지 않은 원인이 법인으로부터 기인하는 것처럼 이야기되는 것은 지양해야 하겠음. 또한 회의가 구체적인 수치를 따지기보다는 학교의 전체적인 방향을 논의하는 것이 효율적인 회의가 되리라고 생각함.

법인도 최선을 다하겠지만, 학교, 법인, 예수회, 동문 등 학교 구성원 전체가 노력하여 학교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나아갔으면 하는 바람임.

3. 결정사항

-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는 차기 회의를 소집하여 법인에서 약속한 14억 원의 자금을 확보하여 각종 평가에 대비해 수년 내에 효율적으로 내려보내겠다는 공문을 법인으로부터 제출받아 확인한 후 2019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 본예산(안)을 의결하기로 결정함.

4. 차기 회의 일정

- 예산 심의를 위한 제3차 등록금심의위원회 일정을 아래와 같이 결정함.
- 2020년 1월 21일(화) 15:00

2020. 1. 21.

위의 사실을 확인함

위원장 : 유신재 기획처장



(교직원, 법인 위원)

(학생위원)

(외부전문가)

김달원
법인 사무팀장



김형은
학부 총학생회장



김창배
파투아 부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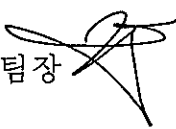
전종호
학생문화처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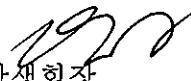
정민재
학부 추천위원



박시남
기획예산팀장



장두용
대학원 총학생회장



송방호
경영전문대학원 원우회장

